

전남교육청, 온라인 개학 맞아 장애학생 학습지원 마련

시각·청각·지체·발달 등 장애유형별 학습장 개설
초·중·고 특수교사 33명 학습지원단 구성 제작·지원

전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맞게 되는 학교현장에서 교육 소외계층인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단계적 온라인 개학 발표에 따라 장애학

생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학습 및 관련 서비스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선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을 안내한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활용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을 적극 이용하도록 했다.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은 시각, 청각, 지체, 발달 등 장애유형 별로 개설돼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초·중·고 특수교사 33명으로 온라인 학습지원단을 구성, 학습콘텐츠 제작과 현장 지원을 돕도록 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 원격수업 참여가 어렵거나,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가정 또는 생업 혹은 조손가정 등의 이유로 원격수업에 도움을 주는 가족

이 없는 장애학생에게는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가정방문 지도에 나서고 있다.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은 원격수업과 병행해 진행하며, 언어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1대1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특히 시·청각·지체 장애 유형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점역 파일, 문자, 수어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경우 도내 3개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목포, 순천, 나주)를 통해 지

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2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 도서, 교재교구 등을 가정에서 필요시 대여해 준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학교 내 원격연수를 위한 환경 구축, 소외된 가정의 지원과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체 특수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마스크 비축, 학교 소독 등 등교학

허성은 기자

장흥 안양면, 사랑과 정성 담은 밑반찬 지원사업 실시



160여 가구에 밑반찬 5종 전달
장흥 안양면행정복지센터(면장 송남진)는 안양면 생활안전협의회장(김병진)과 (유)정인건설(대표 박경아)이 기탁한 이웃돕기 성금에

함입어 지난 1일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로당 휴관이 계속됨에 따라 집에서만 생활하시는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바깥출입이 어려운 160여 가구를

선정하고 이장, 부녀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장(회장 박신자)을 비롯한 부녀회원들은 마스크 착용 등 위생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며 영양만점 밑반찬 5종을 준비했다.
송남진 안양면장은 “바쁘신 와중에 밑반찬 나눔 활동에 참석해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주시는 새마을부녀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반찬을 전달 받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좀 더 힘을 내시면 좋겠고,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항상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동부권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광주복지재단, '헌혈·기부 캠페인' 실시

광주전남혈액원과 공동 코로나19 극복 동참 100여명 참여

광주복지재단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현장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은 지난 2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공동으로 '2020 희망플러스 사랑나눔 헌혈·기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헌혈 금감으로 수혈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광주복지재단 노동조합이 재단 측에 의료현장에 힘을 보태기 위한 헌혈과 성금모금을 제안하여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는 재단 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헌혈버스를 이용한 직접

헌혈, 헌혈증 기증, 성금 모금에 동참하며 이웃사랑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 해 큰 의미를 더했다.
광주복지재단 김백수 사무처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임직원이 함께하는 자발적 나눔 실천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모금한 성금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현장에 기부할 예정이다.

조인호 기자

광양시청 다사랑회·작은봉사회,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에 성금 전달

각각 250만원 기탁
광양시청 다사랑회(회장 최난숙), 광양시청 작은봉사회(회장 장영수)에서는 지난 2일 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의 일환으로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이사장 서경석)에 각각 성금 25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광양시청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광양시청 작은봉사회 장영수 회장은 “코로나-19감염증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많이 위축되

고 침체되어, 조금이나마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광양시청 다사랑회 최난숙 회장은 “광양시민 모두가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감염증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권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군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